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김 영 익**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권 순 우***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

본 연구는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연구이다. 중·고등부 청각장애학생 3명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능력은 대상자 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여 3개월 동안 주 2~3회, 총 38회에 걸쳐 중재시간은 40분 내·외로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사전·사후 설계를 통하여 검증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는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이해능력에 향상을 보였다. 특히, 중재 종료 후 휴지기를 가진 뒤 확인한 유지 단계에서도 대상학생 3명 모두에게서 향상된 관용어 이해능력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에 지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5점 척도평가 사전 검사에서 총 23문항에 대한 평균척도는 대상학생 모두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으나, 사후 검사에서는 대상학생 3명 모두에게서 향상된 자기효능감의 긍정적인 변화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들을 고려해보면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학생들의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주제어 : 삽화, 관용어, 청각장애, 자기효능감

* 이 논문은 대구대학교 2015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 주저자

*** 교신저자 (ksww1114@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생애 주기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의 습득을 통하여 끊임없이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시도하려고 한다. 영유아기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기로, 취학 후 부터 청소년기 학교 교육에서는 읽기, 쓰기를 통한 문자의 이해와 표현을 통하여 다양한 의사소통으로 발달해 간다.

그러나 청각기관에 손상을 입은 청각장애학생은 인간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언어생활 중에서 말소리에 의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권순우, 김병하, 김남진, 2003). 또한,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취학 전 청력에 손상을 입게 되면 청각장애학생들은 학령기 이후 듣기, 말하기뿐만 아니라 학습에 관련된 중요한 학업기술인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에서 낮은 학업성취도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반복되고 학습된 학업실패의 경험은 자기효능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영익 권순우, 남윤석, 2012).

청각장애학생의 읽기능력의 부족은 텍스트 글이 의미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적 사고와 추론적 사고, 그리고 창의적 사고 능력을 어렵게 한다. 청각장애학생의 읽기 이해 능력은 4~5학년 정도의 수준을 나타낸다. 특히, 문법, 비유적·은유적인 표현, 문맥 이해 등에서 어려움을 나타낸다(권순우 외, 2017). 청인학생들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부터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생각들과 경험을 통하여 읽기이해의 전략 과정이 본격적으로 발달하기 시작한다(김동일, 2008). 이러한 시기의 읽기능력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발달하여 단어와 단어가 결합하면 새로운 제3의 의미를 내포하는 관용어를 배우고 습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미역국을 먹다”는 “미역국”과 “먹다”의 단어가 결합하여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받은 “시험에 떨어지다”라는 관용어의 속뜻으로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각장애학생들은 이러한 관용어를 이해하고 표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관용어 표현을 청각장애학생들이 이해하고 습득하는데 어려워하는 것은 관용어가 지니고 있는 은유성을 고려할 때 과거의 언어장애가 있었던 학생이 다른 집단에 비해 은유적 의미보다 사전적 의미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Nippold와 Fey(1983)의 연구, 그리고 청각장애학생이 또래 청인학생보다 은유 이해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한 Higham 등(1999)의 연구는 청각장애인이 청인에 비하여 관용어를 습득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성소연, 2007; 김영익, 권순우, 남윤석, 2012).

이러한 1차적인 비유적 또는 은유성을 내포하고 있는 관용어 이해와 표현의

어려움은 반복된 학습의 무기력으로 인하여 낮은 학업성취도로 나타나고, 2차적으로는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에게 관용어(비유적 또는 은유적 표현, 사자성어, 속담 등)의 언어를 이해하고 표현하게 지도하는 것은 학령기 시절과 학교를 졸업 후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청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문맥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관용어 이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령기 청각장애학생에게 잔존하는 잠재능력을 활용한 시각적인 정보채널인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는 매우 효과적이며, 학습자로부터 장점중심의 동기부여와 주의집중 그리고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 읽기능력의 향상과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삽화는 학습자들로부터 사실이나 정보를 함께 다루어 효과적인 동기 유발을 시키고 학습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가장 효과적인 시각자료로써 언어 기능을 촉진시키는데 매우 좋은 학습 도구라고 할 수 있다(권영옥, 2016). 또한 삽화는 그림을 통하여 문장을 보완하고, 그 이해를 돕기 위해 문장 내용에 관계되는 배경과 인물 등을 묘사하여 그 속에 삽입하는 그림으로 청각장애학생들에게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습득하는 관용어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삽화를 통하여 단어의 의미를 이끌어 내고, 사고능력과 추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은 청각장애학생에게 문맥에서 관용어 이해와 쓰기에 효과적이며, 학습에 대한 자존감과 긍정적 경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청각장애학생의 긍정적인 읽기지도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삽화라는 단서의 제공은 결정적으로 효과적일 것이다(Gilbertson & Ferre, 2008).

삽화 활용에 관한 국내 선행연구를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권영옥(2016)은 한국어교재의 삽화 활용에 관한 연구에서 삽화가 시각적인 언어로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에게 읽기, 쓰기, 어휘, 문화전달에 학습자들의 수준에 따른 흥미를 이끌어 내는데 신뢰할 수 있는 교육자료라고 했으며,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논문으로는 최성규(2005)가 청각장애학생의 쓰기능력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했으며, 김영익, 권순우, 남윤석(2012)은 인공와우 착용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이해와 쓰기에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또한 김지숙(2001)은 청각장애학생의 시각자료와 설명자막의 활용이 읽기수준과 어휘수준에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

읽기능력과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선아(2010)는 읽기능력의 향상이 자기효능감의 향상과 신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고,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황신영(2012) 또한 독후활동의 향상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결과를 미치는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자기효능감에 관련한 이정우(2014)는 청각장애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의사소통양식 간의 관계에서 청각장애학생

들의 발달적 요구에 맞은 언어지도는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으며, 방명애(2016)는 청각장애학생의 의사소통양식이 수어이든, 구화이든 자신이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자신의 언어에 대한 자신감이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를 위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지만 학령기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삽화를 활용한 관용어 이해지도와 관련된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에 관한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학령기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문맥의 의사소통 장면에서 화용론적 측면이 강조되는 속뜻의 의미를 습득할 수 있는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는 매우 중요하며 의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행연구의 관련 사례를 통하여 확인된 것과 같이 시각매체 교수자료인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읽기 지도방법은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에서는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이해능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둘째,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삽화

삽화라 함은 서적, 잡지, 신문 등의 인쇄물 속에 끼워 넣어, 내용과 기사의 이해를 돕는 그림(표준국어대사전, 1999)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용어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매체, 그림, 일러스트레이션 등으로 구성된 자료를 말한다.

2) 관용어

관용어라 함은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와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뜻을

나타내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국어대사전, 1999)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괄적인 의사소통 측면에서 현재 사회에서 관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유 및 은유적 표현과 속담, 사자성어 등을 포함한다.

3) 관용어 이해능력

본 연구에서는 초·중등 교과서 필수 관용어와 EBS 방송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용어 표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경험하고 사용하는 속담과 사자성어를 발췌하여 이를 바탕으로 객관식 문항과 글의 텍스트 제시에 따른 괄호 채워 넣기 문맥에서 올바른 문항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4)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이란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에 대하여 얼마나 적절하게 잘 조직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 또는 기대감이며, 성공적으로 잘 성취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다(Bandura, 2001).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작성한 자기효능감 척도 문항 검사의 충점을 의미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L아동발달센터에서 청각장애로 언어재활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C특수학교의 중학부 학생 1명과 J·G일반학교 고등부 특수학급 1, 2학년에 각각 재학 중인 2명의 청각장애학생으로서 다음과 같은 선정 조건에 해당되는 16~18세 대상자 3명을 선정하였다.

첫째, 중복장애가 없고, 청력손실이 90dB 이상으로 5세 전·후 인공와우 시술을 한 학령기 중·고등학생이며,

둘째, 구문의미이해력 검사에서 원점수 54점 이하 및 KISE-기초학력 검사 도구의 읽기 검사에서 백분위 10%ile 이하의 점수 결과를 보인 학생,

셋째, 연구를 위한 관용어 예비문항 검사에서 정답율 20% 이하의 점수 결과를 보인 학생,

3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넷째, 연구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3개월 이상 참여 가능한 학부모의 동의를 얻은 학생이다.

연구대상 학생의 배경정보는 <표 1> 과 같다.

<표 1> 대상학생의 배경정보

배경정보	대 상	학생 A(여)	학생 B(여)	학생 C(남)
학년 (연령), 의사소통 양식		중 3 (16세), 구어 및 수화	고 1 (17세), 구어	고 2 (18세), 구어
청력손실도 (인공와우 시술 후)		좌 95dB, 우 100dB (좌 30dB)	좌 90dB, 우 95dB (좌 32dB)	좌 100dB, 우 100dB (우 35dB)
K-WISCIV (동작성 지능)		102	98	103
KISE-기초학력검사도구 국립특수교육원 읽기검사		백분위 6%ile	백분위 7%ile	백분위 9%ile
국어교과 관련 성적		2/7명 (특수학교)	25/29명 (일반학급)	29/32명 (일반학급)
예비문항 구성에 따른 관용표현, 사자성어, 속담 이해능력 (EBS-방송교재 4~6학년, 국어사전 초중교과 중 관용어편 포함 총 20문항 발췌 선정)		2문항 정답 10%	3문항 정답 15%	3문항 정답 15%

2.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이해능력 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로서 대상학생 3명에 대한 관용어 이해능력은 대상자 간 중다기초선 설계(multiple-baseline design across subject)로, 자기효능감에 대하여서는 사전·사후 설계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3. 연구 도구

1) 삽화를 활용한 관용어 지도

삽화를 활용한 관용어 지도를 위한 삽화구성과 관용어 선정기준은 김영익, 권순우, 남윤석(2012)의 연구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지도 절차는 <표 2> 와 같이 적용하였으며,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를 위해 선정된 관용어와 회기 별 중재 구성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첫째, 삽화의 구성에 대한 객관성의 검정을 위해서 외국인도 한국어를 배울 때

가장 힘든 내용이 관용어 습득이라고 한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습득과 유사한 점이 있어서 관용어, 속담, 사자성어에 대하여 일맥상통하게 집필한 김선정 등(2007)의 자료에서 관용어 4장면, 속담 2장면, 사자성어 1장면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부족한 장면의 삽화는 문향숙 등(2009)과 본 연구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이 접하는 삽화로 구성하여 선정하였다.

둘째, 관용어 선정은 교학사 중1 국어교재 23종 교과서 공통집필(양철우, 2010)중에서 부록 편에 있는 중등 필수 관용어, 속담, 사자성어에서 대상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경험하게 되는 내용으로 발췌하여 선정하였다.

셋째, 대상학생들의 현재 관용어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EBS 방송교재 중 초등학교 5~6학년에 해당되는 관용어, 속담, 사자성어를 발췌하여 선정하였다.

넷째,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중학교 과정의 필수 관용어로 구성되어진 전광진(2010), 초등학교 속뜻 국어사전 내용에서 발췌하여 선정하였다.

다섯째, ‘살아 있는 한국어’ 김선정 등(2007) 외국인을 위하여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가 보이는 관용어, 속담, 사자성어에서 발췌하여 선정하였다.

<표 2>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 단계별 절차

1 단계	관용어 이해지도와 관련된 삽화와 이를 의미하는 관용어가 쓰여진 자료를 대상자에게 제시한다.
2 단계	제시된 삽화 그림을 보게 한 뒤(약 10초) 삽화와 함께 제시된 관용어(속담, 사자성어 등)에 대하여 아는 대로 표현하라고 한다.
3 단계	제시된 삽화구성에 대하여 연구자가 삽화가 의미하는 것과 함께 제시된 관용어를 연결하여 실생활에서의 사례를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으로(언어적, 비언어적) 들려주어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지도한다.
4 단계	제시된 삽화구성과 관용어에 대한 숨은 뜻의 이해를 돕기 위해 대화 장면의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대상자가 직접 읽도록 한다(경우에 따라서 학생이 어려워하면 연구자와 함께 역할을 나누어 읽기도 한다).
5 단계	읽기 자료를 통하여 제시된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에 대한 숨은 뜻을 대상자에게 이야기 하도록 한다.
6 단계	제시된 삽화구성과 관용어 그리고 대화 장면의 읽기 자료를 연구자와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은 질문하도록 하여 잘 모르는 속뜻의 개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7 단계	중재 후, 매 회기 다음의 중재가 시작되기 전에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 지도에 대한 관용어 이해능력을 평가하도록 한다.

2) 관용어 이해능력 검사

관용어 이해능력 검사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직접 평가문항을 작성하였다. 평가문항의 구성내용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 그리고 객관성을 뒷받침하고자 청각장애학생에 대한 읽기능력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언어·청각장애전공 박사 1명,

특수교육전공 박사 1명, 언어재활전공 석사 1명, 연구자와 함께 총 4명으로 구성하여 회기별 평가 문항을 대상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관용어, 사자성어, 속담 등을 선정하여 33회기 평가문항을 아래 <표 3>의 사례와 같이 작성하였다. 관용어 이해능력 검사는 대상학생 3명의 주된 의사소통 양식인 구어로 실시하였다.

<표 3> 관용어 이해능력 평가 문항(예, 1회기)

1.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시험지가 책상 위 나의 코앞에 놓여 져 있다. ② 선생님께서 들고 있는 시험지가 내 코앞으로 다가왔다. ③ 시험 치는 날이 점점 다가와 며칠 안 남았다. ④ 시험이 있는 날이 코앞에 있어 마음이 불안하다 ⑤ 여러 가지 냄새를 내 코앞에서 시험하려고 제품을 가지고 다가왔다.
2. “눈이 높다.” 관용어 표현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내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위치를 뜻한다. ② 안경을 착용하면 멀리 높은 곳까지 잘 보인다는 뜻이다. ③ 눈을 사용하여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다는 뜻이다. ④ 모든 사물을 볼 때 눈을 높이 하여 보는 것을 뜻한다. ⑤ 쇼핑할 때 싼 제품보다는 비싸더라도 품질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치미를 떼고 있다”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친구가 장난을 치고 자기가 안한 것처럼 가만히 있다. ② 물건을 구입했는데 옷의 상표명인 시치미 스티커를 떼고 있다. ③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일을 옳다고 계속 시치미를 떼고 있다. ④ 내가 먼저 시치미를 떼고 있어야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다. ⑤ 친구의 얼굴 표정을 보니 너무 힘들어 과감치가 되고 시치미까지 떼고 있다.
4.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관용어는 무엇 인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교훈의 내용을 ()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려서 늘 보람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① 가슴에 잘 새겨서 ② 손바닥에 잘 새겨서 ③ 눈 속에 잘 새겨서 ④ 귓속에 잘 새겨서 ⑤ 입에 잘 새겨서
5. “누워서 떡 먹기” 관용어 표현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떡을 먹을 때 누워서 떡을 먹는 아주 쉽다는 뜻이다. ② 앉아 있기가 힘든 몸이 불편한 사람이 누워서 떡을 먹으면 쉽다는 뜻이다. ③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매우 쉽다는 뜻이다. ④ 누워서 떡 먹는 것이 재미가 있고 쉬워서 항상 누워서 먹는다는 뜻이다. ⑤ 어떤 일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항상 누워서 모든 일을 한다는 뜻이다.
6.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어디를 갈 때 말이 잘 달려야 돌아올 때 곱게 힘들지 않다는 뜻이다. ② 가는 말이 든 오는 말이 든 보기에 모두 곱고 아름답다는 뜻이다. ③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를 해 줄 때 상대방도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 준다. ④ 같은 의미의 뜻으로 가는 말이 많아야 오는 말도 많다는 뜻이다. ⑤ 비슷한 속담으로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가 있다.
7. 다음 문장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사자성어는 무엇 인가요? () 1개의 돌을 던져 2마리의 새를 맞춘다는 뜻으로, 한 가지 일로 두 가지를 얻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라고 한다. 예를 들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운동을 하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된다.
① 일석이조 ② 일개이마 ③ 한일두이 ④ 금상첨화 ⑤ 고진감래

3) 자기효능감 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검사는 홍혜영(1995)이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을 토대로 제작한 Shere et al.(1982)의 자기효능감 척도(Self-efficacy Scle) 번역안과, 장선미(2015), 정재형(2011)이 수정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참고하여 임상경력 10년 이상의 재활심리전공 박사 1명, 특수학교 교사 2명, 연구자와 함께 총 4명으로부터 연구의 중재를 받은 청각장애학생들의 수준에 적합한 문항의 선정과 수정·보완을 통하여 작성한 문항을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작성하였다. 자기효능감 척도는 <부록 2>에 제시하였다.

4. 연구 절차

본 연구의 기간은 2016년 7월 12일부터 2016년 10월 21일까지 주 2~3회 총 36회기로 진행하였다. 실험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용한 중재시간은 40분 내·외이며 장소는 김해시에 소재한 L아동발달센터에서 대상학생 3명에 대하여 다음의 <표 4>와 같은 실험 절차에 따라 중재를 실시하였다.

절 차	회 기	기 간
기초선	3~10	2016년 7월 12일 ~ 2016년 8월 4일
중 재	22~24	2016년 7월 19일 ~ 2016년 10월 7일
유 지	3	2016년 9월 28일 ~ 2016년 10월 21일

1) 기초선 단계

기초선 단계는 본 연구의 중재를 시작하기 전 대상학생들의 관용어 이해 정도의 수준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 모두에게 기초선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기초선 평가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기초선 단계에서는 실험 연구자의 어떠한 개입의 중재를 실시하지 않고 관용어 이해능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기초선 수준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이 될 때, 학생 A의 중재를 시작하고, 학생 A가 중재 실시 후 3회기 연속 평균이 회기별 프로그램에 의한 중재 결과로 관용어 이해능력의 평가 성취율이 2.7점(38%)이상으로 효과를 나타낼 때, 학생 B의 중재를 실시하였다. 학생 B 또한 중재 실시 후 3회기 연속 평균의 성취율이 2.7점(38%)이상의 효과로 안정세를 나타낼 때, 학생 C의 중재를 시작하였다.

2) 중재 단계

중재 단계는 본 실험 연구자와 1대 1로 진행하였으며, 중재 기간은 2016년 7월 19일~2016년 10월 17일까지 1주일에 2~3회기로 총 22~24회기였으며, 1회기 중재 시간은 평가 15분과 중재 25분의 구성으로 총 40분 내·외로 실시하였다. 매 회기마다 본 연구의 중재를 위하여 구성한 내용(관용어 4문항, 속담 2문항, 사자성어 1문항)에 의한 중재와 지난 회기 중재 때 제시한 관용어를 바탕으로 작성한 평가 문항(5지 선다형 객관식 5문항, 괄호 채워 넣기 2문항 총 7문항)에 대하여 관용어 이해능력을 평가하였다.

중재의 종료 시점은 대상학생들이 중재의 효과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관용어 이해능력의 평가에서 5회기 평균 성취율이 6점(86%) 이상을 나타낼 경우 중재의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판단하여 중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중재 24회기를 모두 실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대상의 학생들이 청각장애로 어려움을 가지는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남아 있는 잔존능력의 청력을 최대한 활용함과 동시에 다양한 시각적인 정보의 제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하였다. 실험처치의 중재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의 지도를 위해 여러 가지 실제 생활환경에서의 사례를 상황에 맞게 첨부하여 학생들의 관용어 이해를 돕는데 충실하였다.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개념을 설명할 필요가 있거나, 부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제스처 시연을 통하여 관용어의 이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수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실제 사례에 맞추어 지도하였다.

3) 유지 단계

유지 단계는 중재가 종료된 후, 본 연구에서 실시한 중재가 더 이상 시도되지 않아도 그 효과가 지속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지 단계를 두었다. 유지 단계는 중재 단계가 끝난 뒤 1주일의 휴지기간을 거쳐 2016년 9월 28일~2016년 10월 21일까지 진행하였다. 삽화구성에 의한 관용어 이해 지도 구성 내용의 자료를 제공하여 중재의 기초선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3회기 실시하였다.

5. 타당도 및 중재 충실도

1) 사회적 타당도

사회적 타당도는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 내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확인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

타당도는 목표행동의 사회적 중요성, 절차의 적절성, 중재 결과의 중요성 등을 파악하는 것으로 대상학생을 위한 중재 목표의 내용을 제시하고 중재 절차를 선택하고 중재 효과를 평가하는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Kazdin & Matson, 1981; Kazdin, 1982, 이미에 재인용). 문항은 김영익, 권순우, 남윤석(2012)의 질문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다. 평가자는 언어·청각장애전공 박사 1명, 특수교육전공 박사 2명, 특수교육전공 석사 1명, 언어재활전공 석사 1명과 함께 총 5명으로 구성하여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타당도의 평가 문항 결과는 다음의 <표 5> 와 같다.

<표 5> 사회적 타당도 결과

내용 순번	평가 문항	평균(범위)
1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 대상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중재 목표로 합당한가?	5.0(5-5)
2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 대상학생들의 특성에 적합한 교수 지도의 방법으로 타당한가?	5.0(5-5)
3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의 구성 중재 프로그램이 현재 청각장애학생들의 수준에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4.8(4-5)
4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의 중재 전략이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는가?	5.0(5-5)
5	본 연구의 중재가 향후 청각장애학생들이 성인 사회로 진출하여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효과적인가?	5.0(5-5)
6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 중재가 청각장애학생들에게 동기부여와 함께 학습태도 향상 등에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효과적인 교수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가?	4.8(4-5)
7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의 중재에 있어서 중재자가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언어적, 비언어적 지도 방법을 제시하는 수단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다고 판단이 되는가?	5.0(5-5)

2) 중재 충실도

모든 연구는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실험처치에 대한 중재 내용과 지도 방법 대한 적절성 즉, 중재가 계획한 대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중재의 충실도를 구하는 것을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한성희, 남윤석, 2005). 본 연구에서 연구 중재자가 대상학생에 대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한대로 잘 적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중재 충실도의 점검표를 김영익, 권순우, 남윤석(2012)의 점검 내용을 인용하여 아래 <표 6> 과 같이 작성하였다. 충실도 점검표의 문항에 대한 채점 평가자는 언어·청각장애전공 박사 1명, 특수교육전공 박사 1명, 언어재활전공(1급 자격)

3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석사 1명 모두 3명으로 구성하여 연구자가 중재하는 장면을 촬영한 관찰비디오를 7 회기, 14회기, 21회기, 총 3회에 걸쳐 분석하였다.

〈표 6〉 중재 충실도 점검표 문항별 평균

순번	내용	점검 내용	점 수 (5점 만점)			
			A	B	C	평균
1		중재가 대상학생에게 동기가 부여될 수 있는 적절한 내용으로 지도가 되었는가?	4.67	4.59	4.75	4.67
2		삽화구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관용어를 이해하는데 대상학생이 경험한 내용으로 적절하게 제시, 지도 설명이 되었는가?	4.75	4.67	4.42	4.61
3		삽화구성에 대한 설명의 제시가 대상학생이 관용어를 이해하는데 적절했는가?	4.75	4.42	4.75	4.64
4		중재와 관련하여 제시된 관용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대상학생이 모르는 어휘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게 제시가 되었는가?	4.59	4.67	4.59	4.61
5		제시된 관용어에 대하여 언어적 설명으로 어려운 경우 비언어적 지도방법으로 적절하게 지도하였는가?	4.67	4.75	4.42	4.61
6		중재가 실시되는 동안 대상학생의 동기부여와 수업 태도에 긍정적 결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의미 있게 구성하여 제시하였는가?	4.75	4.67	4.42	4.61
7		제시된 관용어에 대한 이해가 쉽게 전달 될 수 있도록 비슷한 관련 사례가 적절하게 제시되었는가?	4.59	4.42	4.59	4.53
전체 평균			4.68	4.59	4.56	4.61

A: 언어·청각장애전공 박사, B: 특수교육전공 박사, C: 언어재활전공(1급) 석사

6. 자료처리

관용어 이해능력의 자료 수집은 기초선 2회기, 중재 7회기, 유지 1회기를 중재한 내용에 대하여 무작위로 10회기를 관찰카메라로 녹화하였으며, 관용어 이해능력의 자료처리는 평가 결과의 점수를 단일대상 연구대상자 간 중다기초선설계를 사용하여 매 회기마다 평가한 득점한 대상학생들의 원점수에 대하여 백분율로 〈표 2〉와 같이 처리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작성한 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여 〈부록 3〉과 같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료처리는 중재를 실시하기전과 중재를 종료한 후에 자기효능감 척도를 학생들에게 작성하게 하여 사전·사후의 결과를 토대로 하는 비교 분석을 하였다.

III. 연구 결과

본 연구는 학령기 이후 중·고등부 3명의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를 위한 회기별 구성된 중재 내용을 적용한 결과 대상학생 3명 모두에게서 중재의 효과가 기대되는 관용어 이해능력의 향상과 자기효능감에도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또한 중재 후 유지도 모두 효과가 있었다.

1. 관용어 이해능력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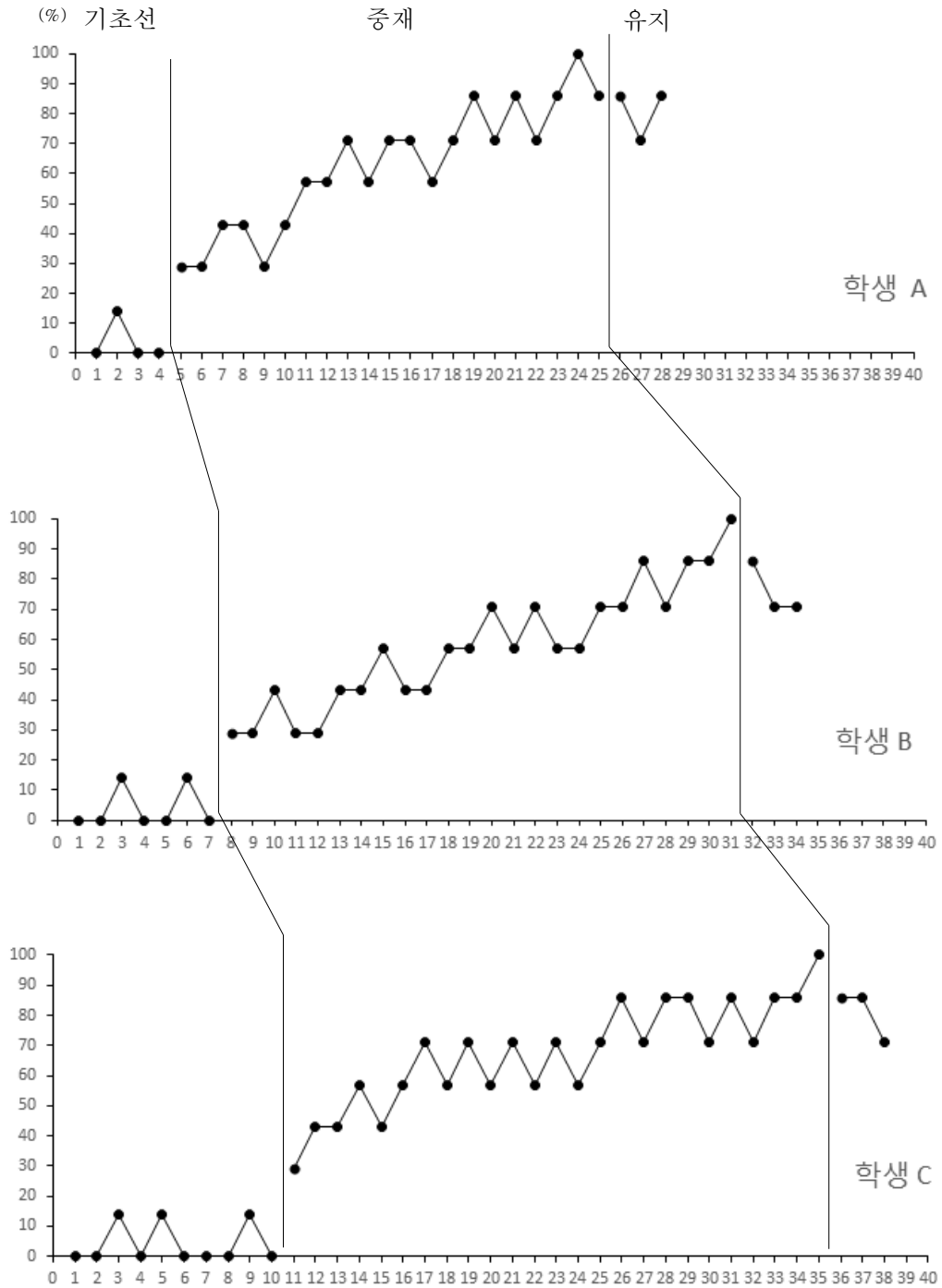
대상학생들에게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를 위한 중재를 실시하였을 때 각 단계별 나타난 능력의 변화에 따른 평가 점수의 변화는 [그림 1]의 중다기초선 설계 그래프와 같다. 그리고 중재를 위한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의 기간 중 대상학생들의 관용어 이해능력에 대한 평균 점수(범위) 및 백분율을 살펴보면 <표 7> 과 같다.

대상학생들의 관용어 이해능력에 대한 평균 획득 점수를 살펴보면 7점 만점(100%)에 대상학생 A의 획득 점수는 중재 전 기초선 3회기에서 0.25점(3%), 중재기간 21회기에서 평균 4.30점(61%), 유지 3회기에서는 평균 5.66점(81%)으로 대상학생 중 가장 높은 관용어 이해능력을 보였다. 대상학생 B의 획득 점수는 중재 전 기초선 7회기 평균 0.29점(4%), 중재기간 24회기에서 평균 4.04점(58%), 유지 3회기에서는 평균 5.33점(76%)을 나타내었으며, 대상학생 C는 중재 전 기초선 10회기 평균 0.40점(6%), 중재기간 25회기에서 평균 4.72점(67%), 유지 3회기에서의 평균은 5.66점(80%)을 나타내었다. 중재의 효과가 의미 있게 나타나는 중재 종료 전 5회기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대상학생 A는 5.8점, 대상학생 B는 5.4점, 대상학생 C는 6점으로 모두 7점 만점에 5.4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다.

<표 7> 관용어 이해능력 평가(7점 만점)에 대한 평균 점수(범위) 및 백분율(%)

	대상학생 A	대상학생 B	대상학생 C
기초선	0.25 (0 - 1), 3%	0.29 (0 - 1), 4%	0.40 (0 - 1), 6%
중재	4.30 (2 - 7), 61%	4.04 (2 - 6), 58%	4.72 (2 - 7), 67%
유지	5.66 (5 - 6), 81%	5.33 (5 - 6), 76%	5.66 (5 - 6), 80%

() 괄호 안의 점수는 기초선, 중재, 유지 단계의 최하점과 최고점의 범위



[그림 1] 관용어 이해능력의 변화

2. 자기효능감의 변화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자기효능감의 척도 평가를 <부록 3> 과 같이 사전·사후로 실시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결과는 <표 8> 과 같다. 이러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대상학생 A는 중재 전 실시한 자기효능감 사전 검사에서 총 23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의 원점수 합계가 51점(평균척도 2.2점)으로 30%의 자기효능감을 가지는 태도로 비교적 낮은 상태를 나타내었으나, 중재를 종결 후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는 원점수 합계가 79점(평균척도 3.4점)으로 61%의 자기효능감을 가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다. 원점수의 변화가 28점의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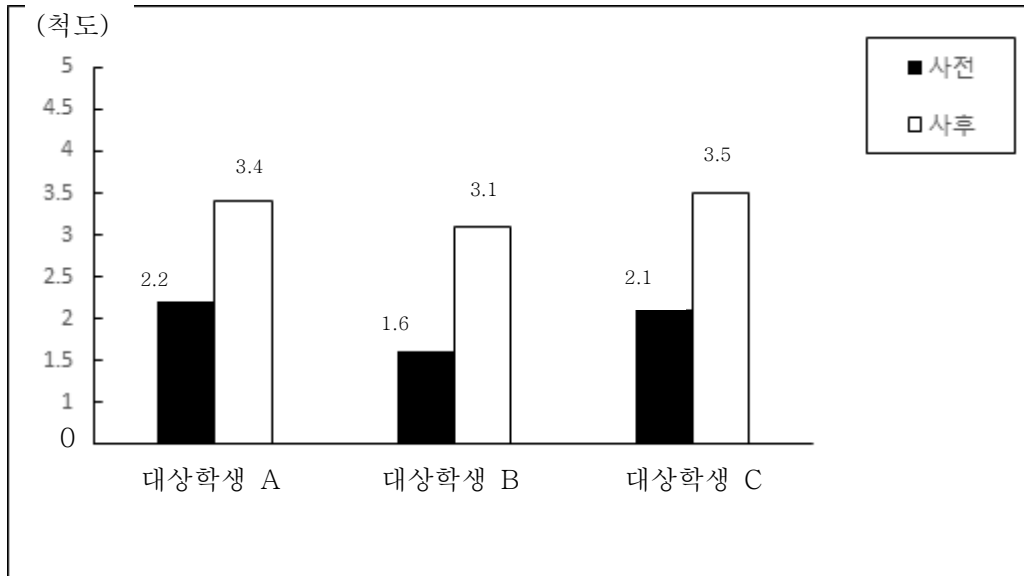
대상학생 B는 중재 전 실시한 자기효능감 사전 검사에서 총 23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의 원점수 합계가 36점(평균척도 1.6점)으로 14%의 자기효능감을 가지는 태도로 매우 낮은 자기효능감을 나타내었으나, 중재를 종결 후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 원점수 합계가 71점(평균척도 3.1점)으로 52%를 나타내는 매우 높은 자기효능감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점수의 변화가 35점으로 대상학생들 중에서 가장 높은 변화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었다.

대상학생 C는 중재 전 실시한 자기효능감 사전 검사에서 총 23문항에 대하여 5점 척도의 원점수 합계가 48점(평균척도 2.1점)으로 27%의 자기효능감을 가지는 태도의 정도로 낮게 나타내었으나, 중재를 종결 후 실시한 사후 검사에서 원점수 합계가 81점(평균척도 3.5점)으로 63%를 나타내었다. 원점수 향상은 28점, 백분율은 36%의 긍정적인 향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학생들 3명 모두에게서 자기효능감의 효과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표 8> 자기효능감의 변화 비교

대상자 \ 점수	5점 척도 평균(원 점수 합계)		백점 환산 (평균)	
	사전	사후	사전	사후
대상학생 A	2.2점(51점)	3.4점(79점)	30점	61점
대상학생 B	1.6점(36점)	3.1점(71점)	14점	52점
대상학생 C	2.1점(48점)	3.5점(81점)	27점	63점

* 비교: 총 23문항 - 최고 5점 척도 합계 115점, 최하 1점 척도 합계 23점



[그림 2] 자기효능감 변화 비교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청각장애학생의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미치는 효과의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의 중재는 청각장애학생들 3명 모두에게 관용어 이해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삽화가 텍스트와 같이 제시될 때 추상적인 문장을 이해하는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며(Royer & Cable, 1976), 삽화가 텍스트에서 시각 정보를 통한 쉽게 종합적으로 의미를 유추하는데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의미 있는 학습이라고 보고한Mayer(1989)의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관용어 이해능력에 향상을 보인 것은 청각장애학생들은 대부분 잔존능력인 시각 정보에 의하여 학습을 하는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추론적인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의 동기부여와 주의집중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된다.

본 연구대상 학생들은 학령기 이후의 청각장애학생들로 이미 초등학교 이룬 시기

부터 음성언어가 시각언어로 표현되는 글자에 대하여 1차적인 음성언어를 청력을 통해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지녔기 때문에, 2차적인 시각언어 즉, 단어 그대로 표현되는 단어의 이해는 어느 정도 쉽게 이해를 하지만(휴대폰, 슬프다, 아름답다. 등) 사회적 상황의 의사소통에서 관습이 되어 굳어진 관용어의 표현(눈앞이 깜깜하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등)을 이해하는 데는 매우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들의 남아 있는 잔존능력과 잠재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각적인 정보를 통한 학습 매체인 삽화구성을 활용한 관용어 이해를 지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지도 방법에 있어서 시각자료의 활용이 기본적으로 고려된다(최성규, 2005)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의 중재 프로그램이 청각장애학생의 읽기능력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 청각장애학생들은 학령기 중·고등부 학생으로 학교 정규 교과과정과 차후 사회적응을 위한 전환 서비스 교육을 받는다. 학교를 졸업한 후 건청인들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이 지역사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관습적으로 표현되는 단어의 의미는 꼭 알아야 한다.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닌 숨은 속뜻이 사회적 상황에서 관습이 되어 사용되는 다른 뜻을 내포하는 비유적, 은유성, 속담이 지니는 관용어의 이해와 표현에 어려움을 가지지 않도록 기대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대상학생 모두가 자기효능감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자기 자신의 믿음과 자신감 향상에도 좋은 결과를 가지도록 하였고, 질적인 의사소통의 습득에도 향상을 가져왔다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둘째,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의 중재는 청각장애학생들 3명 모두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재의 회기별 내용이 동기부여와 현재 학교 실생활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삽화구성으로 매 회기 중재와 함께 실시한 관용어 이해능력의 평가 향상이 대상학생들에게 학습된 좌절감과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즉각적인 피드백을 이끌어 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령기 청각장애학생들은 학습뿐만 아니라 또래 관계형성과 청소년기에 겪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자신감과 자기효능감의 관점에서 학교생활의 학습에 대한 부담감을 회복시켜 준다면 보다 바람직한 자신의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중재에 대한 유지의 여부를 확인한 실험 연구였다.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학생 3명 모두에게서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와 비교해 보면 삽화구성을 통한 중재가 관용어 이해와 쓰기를 향상시킨다고 본 최성규(2005)와 황신영(2012)이 보고한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특수학급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이었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와우 수술을 6세 전·후로 한 청각장애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하여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로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에 한정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였으므로 연구의 결과를 모든 청각장애학생들에게 일반화하기에 어려운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후속 연구에서는 관용어의 표현 학습이 교과서에 제시되고 시작되는 초등학교 3~4학년 청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본 연구 프로그램의 중재에 대한 관용어 이해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대한 효과 검증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 중재한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이해지도가 대상자가 중·고등부 청각장애학생 3명에게서 효과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관용어 이해지도가 전체적인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연구원 (1999). **표준국어대사전**. 서울: 금성출판사.
- 국어사전편찬위원회 (1999).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 권순우, 김병하, 김남진 (2003). 읽기 지도 중 신문활용 교육을 통한 청각장애학생들의 독해력 향상. **난청과 언어장애 연구**, 26(1), 99-113.
- 권순우, 김영익, 정은, 팽재숙 (2017). **특수교육학개론**. 서울: 창지사.
- 권영옥 (2016). 한국어교재에서의 삽화 활용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익, 권순우, 남윤석 (2012). 삽화구성을 통한 관용어 읽기지도가 인공와우 착용 청각장애 학생의 관용어 이해와 쓰기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21(1), 103-124.
- 김선아 (2010). 읽기 활동을 통한 자기조절 쓰기전략 교수가 읽기, 쓰기 능력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선정, 강진숙, 윤애숙, 임현정 (2007).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서울: 한글파크.
- 김선정, 강진숙, 윤애숙, 임현정 (2007). **살아있는 한국어 속담**. 서울: 한글파크.
- 김선정, 강진숙, 윤애숙, 임현정 (2007). **살아있는 한국어 사자성어**. 서울: 한글파크.
- 김지숙 (2001). 시각자료의 설명자막의 활용이 청각장애학생의 과학개념 이해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향숙, 유남영(2009). **똑똑한 만화 교과서**. 서울: 대교출판.
- 방명애 (2016). 구화와 수화사용 청각장애중등학생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및 삶의 질 비교.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소연 (2007). 청각장애인의 관용어 이해능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철우 (2010). **중1 국어교재**. 서울: 교학사.

- 이미애 (2009). 장점중심중재가 장애유아의 통합학급 참여활동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정우 (2014). 청각장애대학생의 자아정체감, 자기효능감, 의사소통양식 간의 관계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선미 (2015). 예술통합교육을 적용한 움직임프로그램이 지적장애아동의 자기표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광진 (2011). **초중교과 속담학습 국어사전**. 서울: HBL 교육출판사.
- 정재형 (2011). 지적장애 학생의 축구슈팅 프로그램 참여가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성규 (2005). 삽화를 이용한 대체사고전략이 청각장애아동의 쓰기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14(1), 149-161.
- 한성희, 남윤석 (2005). 특수교육에서의 단일대상연구 적용의 질적 개선을 위한 문헌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0(2), 103-130.
- 황신영 (2012). 독후활동 프로그램이 중학교 특수학급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혜영 (1995). 완벽주의 성향, 자기효능감, 우울과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 A. (2001). **자기효능감과 삶의 질: 교육, 건강, 운동, 조직에서의 성취**[*Self-efficacy : the exercise of control*]. (김의철, 박영신 공역). 서울: 교육과학사.
- Conley, J. D., (1976). Role of idioms Expressions in Reading of Deaf children. *American annals of the Deaf*, 121(7).
- Gilbertson, D., & Ferre, S. (2008). Consideration in the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process for deaf and hard of hearing student with reading difficulties. *Psychology in the Schools*, 45(2), 104-120.
- Higham, J., Wegmann, J., & Woods, J. (1999). Visual and verbal metaphors among children with typical language and disorder.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 32, 25-35.
- Kazdin, A. E., & Matson, J. L., (1981). Social validation in mental retardation. *Applied Research in Mental Retardation*, 2(1), 39-53.
- Kazdin, A. E., (1982). Single-case research designs: *Methods for clinical and applied settings*. NY: Oxford University Press.
- Mayer, R. E. (1989). Systematic thinking fosteted by Illustration in scientific tex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240-246.
- Nippold, M. A., & Fey, S. H. (1983). Metaphoric understanding in preadolescent having A history of language acquisition diffculties, *language, Speech, and Hearing Service in Schools*, 14, 171-180.
- Sherer, M., Maddux, J.,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 Jacobs, B.,(1982). the Self-Efficacy Scale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51, 663-671.

4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Reynolds, H. N., & Rosen, R. F. (1973). *The effectiveness of textbook, individualized and pictorial instructional formats for hearing-impaired college students.*(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075 968).

The Effect of Idiom Teaching to Compose Illustrations on the Ability to understand Idiom and Self-Efficacy of Students with Hearing Impairment

Kim, Yeung-Ik

Dept of Education, Yeungnam University

Kwon, Soon-Woo

Dep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comprehension of idiomatic instruction through the composition of illustrations on the Ability to understand idiom and self - efficacy of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Three students with middle and high school hearing impairment were assessed by using a multiple-baseline design between 3 and 6 times a week for a total of 38 sessions. Self - efficacy was verified by pre - and post - desig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understanding of idioms through the composition of illustrations improved the Ability to understand idiom of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Especially, we could confirm the effect of improved Ability to understand idiom in all 3 target students in the maintenance stage after having stopped after intervention.

Second, the effect of instruction on self-efficacy of the instruction on the understanding of idiomatic instruction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figure was 5 points. In the preliminary test, the average scale of 23 items showed low self-efficacy in all students, We could confirm the effect of positive change of self-efficacy improved from all.

Therefore,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understanding of the idiomatic language through the composition of the illustrations is effective for the hearing impaired students' ability to understand the idiomatic language and self-efficacy.

Key Words : illustration, idiom, hearing impairment, self-efficacy

논문 접수: 2018. 02. 06 심사 시작: 2018. 02. 07 게재 확정: 2018. 04. 09

46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부록 1> 관용어 이해지도 회기별 중재 내용(1~18회기)

회기	관용어	속담	사자성어
1	시험이 코앞. 눈이 높다. 시치미를 떼다. 가슴에 새기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누워서 떡 먹기.	일석이조
2	그림의 떡. 귀가 솔깃하다. 손을 떼다. 눈코 뜰 새 없다.	식은 죽 먹기다. 작은 고추가 맵다.	감언이설
3	수박 겉핥기. 발을 벗고 나서다, 입을 맞추다. 손이 크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구사일생
4	얼굴이 두껍다. 눈을 감아 주다. 어깨가 무겁다. 살아갈 맛이 난다.	등잔 밑이 어둡다. 금강산도 식후경.	일편단심
5	발을 벗고 나서다. 눈이 높다. 바가지를 쓰다. 진땀을 흘리다.	하늘의 별따기.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작심삼일
6	비행기를 태우다. 콧대가 높다. 내 코가 석자다. 입에 침이 마르다.	울며 겨자 먹기. 가는 날이 장날이다.	동문서답
7	눈독을 들이다. 손에 땀을 쥐다. 마음에 들다. 허리띠를 졸라매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도토리 키재기	만장일치
8	바람을 맞다. 찬물을 끼었다. 애를 먹다. 땀을 들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어부지리
9	귀에 못이 박히다. 한눈을 팔다. 발목을 잡다. 눈에 불을 켜다.	시작이 반이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부전자전
10	파김치가 되다. 다리를 뺀고 자다. 손을 보다. 꿀 먹은 벙어리.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팔은 안으로 굽는다.	동고동락
11	우물 안 개구리. 귀가 가렵다. 담을 쌓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옷이 날개다.	이열치열
12	한턱(을)내다. 가슴이 쩡하다. 발이 넓다. 배가 아프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유언이어
13	손발이 맞다. 코가 납작해지다. 눈이 뒤집히다. 간이 부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꿩 먹고 알 먹기	천고마비
14	귀에 거슬리다. 입을 모으다. 발이 묶이다. 가슴이 내려앉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새 발의 피.	학수고대
15	싼 게 비지떡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깊은 맛이다. 없던 힘이 샘솟는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돌다리도 두들겨라.	전화위복
16	목소리를 높이다. 이를 악물고. 맛이 끝내준다. 주머니가 가볍다.	벼룩의 간을 내어 먹는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십중팔구
17	몸이 천근만근이다. 입에 풀칠하다. 물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른다.	웃는 낮에 침 못 뱉는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자초지종
18	요즘 뜨거운 감자. 뿌리를 뽑다. 가시방석에 앉다. 오리발을 내밀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금상첨화

비고: 관용어 4문항, 속담 2문항, 사자성어 1문항으로 총7문항을 1회기로 구성

<부록 2>

관용어 이해능력

회기	학생 A		학생 B		학생 C		증재·유지
	점수	비율	점수	비율	점수	비율	
1	0(점)	0%	0(점)	0%	0(점)	0%	
2	1	14%	0	0%	0	0%	
3	0	0%	1	14%	1	14%	
4	0	0%	0	0%	0	0%	
5	2	29%	0	0%	1	14%	(A증재)
6	2	29%	1	14%	0	0%	
7	3	43%	0	0%	1	0%	
8	3	43%	2	29%	0	0%	(B증재)
9	2	29%	2	29%	1	14%	
10	3	43%	3	43%	0	0%	
11	4	57%	2	29%	2	29%	(C증재)
12	4	57%	2	29%	3	43%	
13	5	71%	3	43%	3	43%	
14	4	57%	3	43%	4	57%	
15	5	71%	4	57%	3	43%	
16	5	71%	3	43%	4	57%	
17	4	57%	3	43%	5	71%	
18	5	71%	4	57%	4	57%	
19	6	86%	4	57%	5	71%	
20	5	71%	5	71%	4	57%	
21	6	86%	4	57%	5	71%	
22	5	71%	5	71%	4	57%	
23	6	86%	4	57%	5	71%	
24	7	100%	4	57%	4	57%	
25	6	86%	5	71%	5	71%	(A종료)
26	6	86%	5	71%	6	86%	(A유지1)
27	5	71%	6	86%	5	71%	(A유지2)
28	6	86%	5	71%	6	86%	(A유지3)
29			6	86%	6	86%	
30			6	86%	5	71%	
31			7	100%	6	86%	(B종료)
32			6	86%	5	71%	(B유지1)
33			5	71%	6	86%	(B유지2)
34			5	71%	6	86%	(B유지3)
35					7	100%	(C종료)
36					6	86%	(C유지1)
37					6	86%	(C유지2)
38					5	71%	(C유지3)
비 고							

48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9권 제2호)

<부록 3>

자기효능감 척도

번호	내용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려워도 사전을 통해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	나는 글을 읽는 것은 공부는 물론 친구들과 의사소통하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	나는 글을 읽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두렵지 않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	1	2	3	4	5
4	나는 글을 읽을 때 새로운 내용이거나 하기 싫은 내용이라도 끝까지 할 수 있다.	1	2	3	4	5
5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글 앞뒤의 문맥을 보고 이해할 수 있다.	1	2	3	4	5
6	나는 스스로 읽어야 할 책을 계획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을 수 있다.	1	2	3	4	5
7	나는 학습을 하면 학교나 집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8	나는 학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1	2	3	4	5
9	나는 부모님이 계획해주신 공부해야 할 분량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10	나는 글을 읽을 때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즉시 선생님이나 친구들에게 도움을 청한다.	1	2	3	4	5
11	나는 학교에서나 집에서 글을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할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12	나는 노력만 한다면 읽기가 어려운 내용이라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	1	2	3	4	5
13	나는 특정 주제의 글을 읽고 그룹 수업을 통한 토론 활동 참여에 자신이 있다.	1	2	3	4	5
14	나는 스스로 계획한 중요한 목표를 이루어 본적이 있다.	1	2	3	4	5
15	나는 잘 모르는 상황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더라도 두렵지 않다.	1	2	3	4	5
16	나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도 포기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끝까지 노력한다.	1	2	3	4	5
17	나는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끝낼 때까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한다.	1	2	3	4	5
18	나는 무슨 일을 하기로 마음먹으면 즉시 그 일을 한다.	1	2	3	4	5
19	나는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할 때 처음에 잘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 한다.	1	2	3	4	5
20	나는 나의 자신에 대하여 단점(부족한 것) 보다는 장점(잘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1	나는 실패했을 때 오히려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1	2	3	4	5
22	나는 행복한 사람이고,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는 자신이 있다.	1	2	3	4	5
23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 전에 먼저 다가간다.	1	2	3	4	5

(총점 척도; 1점:23 - 3점:69 - 5점:115)

A 학생: 사전- 51점 사후- 79 점 28점 향상
 B 학생: 사전- 36점 사후- 71 점 35점 향상
 C 학생: 사전- 48점 사후- 81 점 33점 향상